

복지의 온풍 솔~솔~

‘사회복지법인 혜원’ 금산사 텃밭에 배추 재배



부산 기장 금산사에서 열린 '배추모종심기'에 참가한 복지법인 혜원의 자원봉사자들과 금산사 주지 무유 스님(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9월 12일, '사회복지법인 혜원'이 사장 원혜의 자원봉사자 30명은 부산 기장 금산사 뒤 텃밭에서 배추 모종을 심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허리 펴 사이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데도 12월 초순경 직접 심은 배추를 수확해 김장을 담궈 무의탁 노인들과 소년소녀가장에게 나눠줄 생각이 고단함은 대수롭지 않는 눈치다.

9년째 자체적으로 배추를 수확해 김장을 담궈던 금산사(주지 무유는 '사회복지법인 혜원'의 봉사자들이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에 김장 나누고 생활도 돌봐

이날 자원봉사자들의 씨 뿌리기는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혜원'이 사회의 그늘진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게 될 복지의 씨앗 뿌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다짐의 자리여서 의미를 더했다. 2004년 5월 31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그동안 두 차례 소년소녀가장 돕기 음악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열어왔다.

이제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복지의 씨앗 뿌리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가까운 이웃의 어른과 청소년부터 알뜰하게 챙기며 앞서는 노인 복지, 청소년 복지의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혜원'은 그동안 병원 봉사, 경로잔치 등을 열어왔던 혜원정사의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펼쳐왔던 반찬 서비스, 목욕 봉사 외에도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 등을 통해 경험을 쌓은 후, 향후에는 복지관 위탁 등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업을 추진해가겠다는 포부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장 원혜 스님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이 고스란히 복지에 들어있다'며 "앞으로 일반적으로 누가 누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행복을 가꿀 수 있는 생동하는 복지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51)868-0138

전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쌍둥이 비로자나불 친견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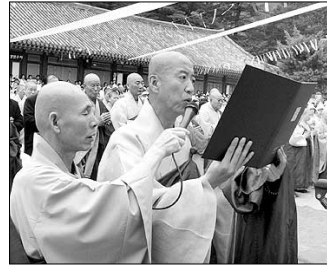
해인사 12월 18일까지

국내 최고(最古)의 목불로 확인된 해인사 쌍둥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9월 10일 해인사 보경당에서 일반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인사 보경당 앞마당에서 봉행된 비로자나 부처님 100일 친견법회에는 심의조 합천군수를 비롯한 1500여 사부대중이 운집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개금불사를 앞두고 옷칠한 상태의 두 비로자나불 좌상은 지권인(왼쪽 집게손가락을 오른쪽 엄지손가락으로 감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근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친견하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지난 6월 개금과정에서 내부 명문으로 중화3년(883년)에 제작되었다는 연기문이 발견된 범보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측에 모셔졌고, 문화재 전문가의 내부 벽면 명문 해석



해인사 비로자나불 친견법회에서 주지 현응 스님이 고불문을 낭독하고 있다.

에 의해 범보전 부처님과 동시대 함께 제작된 것으로 판명된 대적광전의 비로자나 부처님은 좌측에 모셔졌다. 명문에 의하면 두 비로자나불은 대각간 위홍과 진성여왕의 서원이 담긴 불상으로 크기와 손가락 길이 등 전체적인 모습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쌍둥이 불상이다.

해인사는 12월 18일까지 공개를 마친 뒤 비로전을 지어 두 부처님을 나란히 모실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불광사 친환경공양미운동 동참

인드라망생명공동체가 벌이고 있는 친환경공양미 운동에 서울 불광사도 동참했다.

서울 불광사(주지 지홍)와 인드라망생명공동체(상임대표 도법)는 9월 11일 불광사에서 친환경공양미운동 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서울 봉은사와 부산 흥법사에 이은 세 번째 동참이다.

1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불광사 주지 지홍 스님은 "최근 부처님 전에 올리는 공양미에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며 "사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환경 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도 "정성스럽게 재배한 친환경 공양미와 농산물을 부처님 전에 올림으로써 사찰이 환경·생태 운동의 모범을 보이고 또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을 살리는 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훈련병 4000명 골수기증

생명나눔, 논산훈련소서



"나눔은 삶, 함께하고 싶습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사무총장 이해숙, 이하 생명나눔)가 9월 11일 논산

훈련소에서 진행한 골수기증 캠페인에 훈련병들이 검게 그늘린 팔을 걸어 동참했다(사진).

생명나눔은 이날 일요일에도 논산훈련소 박동진 지도법사의 협조를 받아 4000명의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골수 기증의 필요성과 생명나눔의 활동 취지를 설명했다.

설명회 이후 543명의 훈련병이 골수기증 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유전자형형' 분석 3cc 채혈을 마치고 골수기증희망자로 등록했다.

김경진 기자

가을 산사 음악축제 풍성

고창 선운사·옥천 대성사 등 20여 곳 잇따라

종교화합 등 주제 다양

고창 선운사, 옥천 대성사, 인천 흥륜사, 대구 갖바위 등 전국 곳곳에서 가을 산사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표 참조)

2003년과 2004년 '대중 속으로'를 주제로 산사음악회를 개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옥천 대성사(주지 혜철)는 올해 '종교 화합과 선남선녀'를 주제로 9월 30일 오후 7시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옥천성당과 공동 주최하는 대성사 산사음악회는 불교와 가톨릭 연합합창단의 공연 등으로 종교화합의 메아리를 전하게 된다.

특히 이날 산사음악회 마지막에는 '선남선녀 만남의 시간'을 마련해 음악회에 참석한 선남선녀들이 '만남의 의미'를 세우는 자리도 준비된다.

24일에는 세 곳에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상사화 축제와 함께 열리는 고창 선운사(주지 범어) 산사음악회는 가수 송창식 김태근씨, 대금연주가 이상 스님 등이 신나는 음악의 향연을 펼친다.

청도 청계사(주지 혜봉)는 혜봉 스님과 함께 시는 초·중생 14명으로 구성된 물레방아 사물놀이패의 공연을 선보이는 창건 10주년 기념 음악회를 오후 7시에 연다. 김지연 기자

사찰 및 주제	일자	연락처
서울 백련사 산사음악회	9월 23일	(02)303-4114
대구 갖바위축제 음악회	23일	(053)427-5114
고창 선운사 상사화축제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24일	(063)561-1422
인천 흥륜사 '클래식과 산사의 만남'	24일	(032)832-1133
청도 청계사 창건 10주년 기념 음악회	24일	(054)371-4657
가평 구원사 '하나란 아름다운 느낌' 산사음악회	25일	(031)582-0734
평창 월정사 오대산불교문화축제	30일	(033)332-6664-5
'마음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선(禪)음악회	~10월 2일	
옥천 대성사와 옥천성당	9월 30일	(043)732-5560
'종교화합과 선남선녀' 산사음악회		
대구 은석사 '고산성당과 함께하는 산사음악회'	10월 1일	(063)466-4525-7
봉화 청량사 산사음악회	1일	(054)672-1446
'생령-당신을 존경합니다'		
부산 범어사 음악회	1일	(051)508-3122-7
순천 송광사 불교문화축제 산사음악회	2일	(061)755-0108
서산 부석사 정진선원 상량기념음악회	8일	(041)662-3824
영주 부석사 화엄축제	8일	(054)633-3258
서울 도선사 산사음악회	8일	(02)993-3161-3
제천 무암사 산사음악회	8일	(043)652-0897
'부처님 자비광명으로 온 세상 밝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10일	(053)474-8228
난치병어린이들이 '참좋은 가을음악회'		
양평 사나사 산사음악회	15일	(031)772-5182
해남 미황사 작은 음악회	15일	(061)533-3521
영천 만불사 달맞이 산사음악회	17일	(054)335-0101
공주 감사 창건 1585주년 기념음악회	22일	(041)857-8981
서울 심곡암 단풍축제 산사음악회	30일	(02)914-8860

는 자양1·2·3동, 노유 1·2동 생활보호 대상자 등 광진구 일대의 소외계층이다. 스님은 이들에게 쌀 20kg 한 포대와 식품대금 2만을 각각 전달했다.

법정 스님은 "살기 힘들수록 조금씩 보태는 마음을 모아 어려운 이들에게 보내야 할 것"이라며 "나눔의 향 정신이 널리 퍼져 나가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충청불교계 힘모아 보존할 것

'호남고속철 계룡산 훼손 저지 불교연대' 발족

불교성지 계룡산을 지키기 위해 불교계와 지역 시민단체가 팔을 걷어 붙인다.

'호남고속철 계룡산 훼손 저지 불교연대'(상임대표 장곡, 이하 계룡산 불교연대)는 9월 20일 대전 백제 불교회관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계룡산 보호 활동에 나선다.

계룡산 불교연대 상임대표 장곡 스님(공주 감사 주지)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계룡산 국립공원이 더 망가져서는 안된다"며 "지역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함께 호남고속철도의 계룡산 관통을 저지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계룡산 수호 활동 동점을 선언한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수경 스님도

"북한산, 천성산에 이어 계룡산마저 파괴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며 "충청지역 불교계를 적극 도와 계룡산을 보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룡산 불교연대는 발족 직후부터 지어 사찰에 계룡산 관통 저지 현수막을 내걸고 불자들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계룡산 불교연대에는 장곡 스님을 비롯해 요명 스님(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신원사 주지), 지철 스님(대성사 주지, 대전불교환경연대 대표) 등을 비롯한 50여명의 스님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이 고문을 맡아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정도회, 통일체육축전 개최

9월 25일 서울교대 운동장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동한마당이 펼쳐진다.

정도회 좋은벗들(대표 유수)은 9월 25일 서울교대 대운동장에서 '제3차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한다.

'화해·공존·나눔으로 일구는 아름다운 통일'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일체육축전은 △화해의 장: 한가위 맞이 합동차례와 평화대중제 △공존의 장: 체육대회와 장기자랑 경연대회 △나눔의 장: 내고향 맛저랑과 전 통돌이 체험마당 등으로 꾸며진다.

좋은벗들 대표 유수 스님은 "통일 축전은 남북한 동포들이 함께 어울리는 통일명절"이라며 "특히 이번 축전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꾸려가고 있는 북한동포들이 직접 준비하고 있는 행사"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유철주 기자

圓 大韓佛教曹溪宗 總務院長 仁谷堂 法長 大宗師 宗團葬 寂

한국불교와 중단발전을 위해 한 생을 다하신 큰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며 부디 극락왕생하시어 못다 이룬 원을 다하시길 기원드립니다.

禪宗首寺 刹 奉 恩 寺

주지 설담 원혜

사부대중 일동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전화 02)511-6070~4 / 팩스 544-2141